

조영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동미술을 통한
다양한 표현기법 연구

200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최향란

논문 개요

어린이들의 생각이나 감정, 정서 등을 미술로서 자유롭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망설여지고 서툰 묘화(描畵)¹⁾를 직접 이끌어 가기보다는 누구나 자신 있게 제작 할 수 있는 표현기법을 통해 손쉽게 접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표현기법을 통한 그림 현실에서 상상력과 발견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점차 발전시켜 감으로 보다 넓은 창작 세계에 접근토록 유도 하여야 한다. 즉 단순히 기법을 익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아동 스스로의 개성에 따른 표현에 이르고, 그 기법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기나 데칼코마니를 한 후에 우연의 결과를 보고 연상되거나 상상한 것들을 그 위에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한 가지 기법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기법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기법 교육은 아직 미분화 상태인 아동 또는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정서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현대의 아동들에게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유희적이고 재미있는 표현의 가능성을 발산시켜 주고 신장시켜 줌으로써 다양한 자극을 통한 자기 창작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현기법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아동미술과 표현 기법에 대한 문헌연구 및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아동에게 직접 적용해봄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표현기법에 따른 아동미술교육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료와 기법에 있어 획일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이용

1) 묘화(描畵) : 사전적 의미는 “그림을 그린다” 는 뜻으로 대상을 관찰하여 표현하는 것임. 창의성 발달에 큰 보탬이 안 된다는 일반적인 통념이 많다.

하여 실험성, 탐구성을 지닌 독창적 미술학습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기법에 따른 표현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실험적 기법 활동의 진행 중에 기대 이상의 놀랄 만한 효과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에 따른 자기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교사는 다양한 표현기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표현 능력을 갖추어 교수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표현기법 교육에 있어 본 연구는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한 아동의 창의적 미술활동에 그 기본 방향을 두고 연구 되었다. 이러한 제시를 통해 교사와 아동은 학습의 흥미와 획기적인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표현기법 교육에 대한 관심과 작품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 방법	9
II. 아동미술의 이론적 배경	10
1. 아동미술교육의 의의와 목적	10
2. 아동미술 활동의 중요성	12
3. 아동화의 발달단계	13
4. 아동화의 표현유형 및 특징	16
(1) 아동화의 표현유형	16
(2) 아동화에 나타나는 표현의 특징	19
(3) 아동화의 표현특징에 따른 표현기법	22
III. 아동미술에 있어서의 표현기법	24
1. 표현기법 교육의 필요성	24
2. 표현기법 교육	25
3. 여러 가지 표현기법	26
(1) 우연의 효과를 이용한 표현기법	26
(2) 바탕의 효과를 이용한 표현기법	27
(3) 판·사진 등을 이용한 표현기법	29

IV. 표현기법활용의 실제	31
1. 표현기법	31
(1) 그리기	31
(2) 짝 기	37
(3) 붙이기	40
2. 표현기법에 따른 비교·연구	45
V. 결 론	48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도판

도 목 차

1. [도 1-a] 곡선을 그려요 (초2)	52
2. [도 1-b] 실그림 (초2)	52
3. [도 2] 실굴리기 (초2)	52
4. [도 3-a] 무지개 (6세)	52
5. [도 3-b] 크레파스 환상화 (7세)	52
6. [도 4] 나무 (7세)	53
7. [도 5] 유희이네 (초1)	53
8. [도 6] 불이야! (6세)	53
9. [도 7] 토끼와 해바라기 (6세)	53
10. [도 8] 눈알 (7세)	53
11. [도 9] 꽃 (초2)	53
12. [도 10-a] 다양한 돌맹이 (초1)	54
13. [도 10-b] 우주 (초1)	54
14. [도 11-a] 비가와요 (초2)	54
15. [도 11-b] 부엌 (초2)	54
16. [도 12-a] 나만의 가방 (초1)	54
17. [도 12-b] 내가만든 옷 (초2)	54
18. [도 13] 나무 (7세)	55
19. [도 14] 늘어난 꽃 (초1)	55
20. [도 15] 원숭이 (초2)	55
21. [도 16-a] 꽃 (초1)	55
22. [도 16-b] 꽃밭 (초1)	55
23. [도 17-a] 소 (7세)	56
24. [도 17-b] 우주 그리기 (초1)	56
25. [도 17-c] 커피한잔 (초2)	56
26. [도 18-a] 숲속 (초1)	56
27. [도 18-b] 공작새 (초2)	56

28. [도 18-c] 나뭇잎 물고기 (초2)	56
29. [도 19-a] 실그림 (초1)	57
30. [도 19-b] 마법의 성 (초1)	57
31. [도 19-c] 별나라 우주공룡 (7세)	57
32. [도 20-a] 데칼코마니 (초1)	57
33. [도 20-b] 나비 (7세)	57
34. [도 20-c] 나 (초2)	57
35. [도 21-a] 물감변지기 (초1)	58
36. [도 21-b] 나무 (초2)	58
37. [도 21-c] 안경과 물고기 (초2)	58
38. [도 22-a] 불기 (초1)	58
39. [도 22-b] 생일케익 (7세)	58
40. [도 22-c] 꽃나무 (7세)	58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손에 잡히는 물체를 통해 휘젓고 그려보고 두들겨보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곧 조형행위의 시작이며 이러한 행위는 다양한 미술활동에 의해 충족되어 질 수 있다.

미술활동은 아동에게 있어 자아표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 감정, 정서 등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아동이 내면세계를 잘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 수단이 결여돼 있다면 표현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작품이 풍부해지거나 다양한 표현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풍부한 동기부여와 충분한 참고자료, 다양한 재료와 표현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창의력과 개성적인 표현을 이끌어내야하며, 이 모든 과정이 합리적으로 미술교육 활동에 포함되어 어린이들이 직접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의 미술활동에 있어 다양한 표현기법의 사용은 표현의 구체적 수단으로서 아동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며,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법에 대한 다양한 사고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므로, 개성적이고 창의로운 자기표현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기법에 있어 교사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표현기법을 제시하여 아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 느낌, 욕구, 상상력 등을 표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기법 교육은 그리기 활동(준비물이 간단하고 활동이 까다롭지

않아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진다.)에 비해 번거로운 준비물과 수업을 하는데 있어 아이들의 활동적 참여로 인한 소란스러움(교사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또한 경우에 따라선 아동들의 개별지도가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로 일선 교사에게는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자는 유치원과 미술학원에서 3년 정도 근무했는데 선생님들에게 있어 표현기법 교육은 대회나 유치원 환경미화 또는 어머니들에게 그림을 보여야 할 때 (그림이 나오지 않는 아동에게 단순한 기법은 하나의 작품이 된다.)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보여주기 위한 교육으로 아동들에게는 하나의 맛보기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교사의 번거로움으로 아동의 창의적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미술에 있어 표현기법의 중요성을 알고 표현기법이 아동미술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활용되어지는 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아동미술 전문가들은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미술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대개 사실화를 그리게 되므로 아동의 창의적 표현은 기대하기 힘들고(3학년 학생은 사실기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 아동마다 각각의 차이를 보인다.) 미취학 아동은 학교를 들어가기 전의 아동을 뜻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서도 5세를 포함한 이전의 아동은 그림에 아직은 낚서가 많이 포함되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6세부터 9세(초등학교 2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평면적이고 회화적인 표현기법들이 아동미술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활용되어지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아동미술의 목적 및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 둘째, 발달단계에 맞는 표현기법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나라 아동을 중심으로 한 김정희의 연구를 통해 아동화의 특성 및 발달단계에 근거한 내용적 측면을 살펴본다.
- 셋째,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우연의 효과, 바탕의 효과, 판 사진 등을 이용한 기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넷째, 앞에서 살펴본 기법을 아동미술에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고 비교 연구해 봄으로써 창의적 그림을 도출해 내하고자 한다.

Ⅱ. 아동미술의 이론적 배경

1. 아동미술의 의의와 목적

모든 인간은 창조적 정신을 부여 받았다.²⁾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그리거나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아동의 미술활동은 이러한 본능적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아동은 아직 행동에 있어서 미분화 상태이므로 자신과 타인, 놀이와 일, 현실과 꿈 등에 확실한 구분이 없으며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도 미숙하다. 그러므로 아동은 미술활동을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것을 시각적인 자신만의 상징적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아동의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드러난 무의식적인 반영은 어린이의 감정, 즐거움, 흥미의 표현, 욕구, 성격까지도 포함을 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화를 볼 때는 아동의 성격, 환경, 지능, 의욕, 흥미 같은 것에 관심을 두고 어린이의 심리 발달과 관련시켜 그림을 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화를 지적 교육이나 기술교육으로 생각하고 보게 되면 지적표현이나 기술의 능숙함을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는 아동의 내부세계에 지니고 있는 창조성을 발달시키는 아동 미술교육의 잘못된 시선이라고 볼 수 있다. 화가를 기르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미술표현을 통해 아동의 욕구나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정서적

²⁾ 로웬펠드(Victor Lowenfeld), 오스트리아 린즈에서 출생, 1903-1960

로웬펠드는 세계의 미술교육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그는 이론과 실천을 모두 겸비하여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을 전파시켰다. 로웬펠드는 심리학, 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 맹아학교의 지도경험, 듀이등의 진보주의 채택의 자유표현 운동, 두 차례의 세계대전 등의 영향을 받아 아동중심, 창의성 중심, 자기표현 중심, 발달과정 중심 등의 미술교육 사상을 확립하였다.

으로 안정을 줄 수 있도록 돕는데 아동미술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아동미술 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1) 미적 감각을 기른다.

시각, 지각, 촉각, 운동감각 등의 감각은 조형 활동에서의 경험과 자극에 의해 길러진다.

(2) 폭넓은 정서를 기른다.

유아기 때는 지적인 정서보다 미적인 정서를 더 많이 포함하는 때로 이러한 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내면적인 정서를 도야함은 물론, 지각과 감각의 조화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격이 형성되도록 한다.

(3) 창의성을 기른다.

버트(C. L. Burt)는 유·아동들의 그림이 자기계시(self-revelation)의 한 양식이며, 언어와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유용한 방법이라고 했다. 즉 아무런 구애됨 없이 자기자아를 표현하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생겨나며 강압이나 규제에 의해 창의적 표현이 감소한다.

(4) 독창성을 기른다.

아동은 칭찬과 격려 속에 성장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의 솔직한 표현이 교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아동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신과 확신은 새로운 학습에로 유도하는 흥미와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5) 재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준다.

주변의 다양한 재료와 표현 기법을 통해 조형 활동을 함으로써, 창의력을

3) 권상구, 아동미술교육, 미진사, 1998, p.14

신장시킬 수 있고, 표현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6) 합리적 생활태도를 기른다.

인간은 자기 생활이 가장 합리적이고 새로울 때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아무리 아름답고 새롭다 하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할 땐 불편을 느끼게 된다. 바꿔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다.

2. 아동미술 활동의 중요성

아동은 모든 감각을 통하여 자신이 속한 세계를 인지하고 조작하며 반응한다. 이러한 감각의 통합적 과정을 거쳐 아동은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배우며 지각의 범위를 넓혀나간다. 또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심은 다양한 학습과 모방을 통해 기초개념과 사고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아동은 손에 무언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손에 잡히는 물건을 가지고 굽적거리며 남겨진 흔적에 대해 매우 즐거워한다.⁴⁾ 또한 다양한 미술재료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며 이것을 다루어 봄으로써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낀다. 이와 같이 아동은 자기 주변의 평범함 속에서 미를 발견하고, 다양한 재료와 매체를 통해 활동하며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활동을 통해 창의성이 개발 되고 생활이 풍부해 지며, 무엇인가를 성취해 봄으로써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⁵⁾ 이러한 아동미술 활동은 생활 속에서 정서적으로 상처받거나 무언가 부족한 아동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활동으로써 정서함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4) 김정, 이수경, 조형놀이 교육, 교문사, 1985, p.6

5) 유치원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28

다.⁶⁾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화합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창의적인 자기표현을 통해 사고력 증진과 긍정적 정서를 가질 수 있는 아동미술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아동화의 발달 단계

아동은 각기 다른 성장과정을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그림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게 되는데, 언어나 다른 전달 수단에 의한 의사소통이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아동은 자신의 내면적인 감정이나 갈등 등의 심리상태를 그림활동을 통해 나타내게 된다.⁷⁾ 그들은 보이는 대로의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게 됨으로서 예술적인 측면보다는 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묘화의 성장발달 과정을 통해 연구 분석해 봄으로써 아동의 단계별 연령에 따른 묘화의 특징 및 본질을 알아 볼 수 있다.

그 동안의 미술 교육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 등의 어린이 미술표현 발달 과정에 따른 연구를 비교검토 하면서 아동발달 과정에 따른 묘화의 특징을 알아본다. 우선 묘화발달 과정에 대한 여러 구분을 일별하고 그중 우리나라 아동을 중심으로 한 김정희의 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로웬펠드(V.Lowenfeld)⁸⁾는 미술을 통한 아동발달을 난화기(亂畫期, 2-5세), 전도식기(前圖式期, 4-7세), 도식기(圖式期, 7-9세), 여명기(黎明期, 9-12세), 의사실기(擬寫實期, 12-14세), 사춘기(思春期, 14-17세)로 구분하였고, 리드(H. Read)는 꼬적거림의 낙서기(2-4세), 선묘기(4세), 서술적 상징기(5-6세), 서술적 사실기(7-8세), 시각적 사실기(9-10

6) 양경희, 21세기를 위한 열린 아동미술 교육, p.20

7) 유아미술 교육, 유아미술연구회편, 학문사, 1995, p.106

8) 빅터 로웬펠드(Victor Lowenfeld), 오스트리아 린즈에서 출생, 1903-1960

세), 억압적 시기(11-14세), 예술적 부활기(14세 이후)로 구분하였다.

버트(Cyril Lodowic Burt)⁹⁾는 난화기(2-4세), 선화기(4세), 서술적 상징기(5-6세), 서술적 사실기(7-8세), 시각적 사실기(9-10세), 억제기(11-14세), 예술적 부활기(15세 이후)로 구분하였고, 켈로그(Rhoda Kellogg)¹⁰⁾는 아동의 그림발달 단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묘화형태로 제시하였다. 즉 기초적인 낙서시기를 지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도표와 도식을 만들고, 그 다음 원형으로 옮겨 간다고 했다. 여러 형태의 원형 그림이 나타난 이후에 햇님과 사람의 얼굴 모양이 등장하며, 그 모양은 마치 방사선 모양으로 가서 돌친 밤송이처럼 그린다고 했다. 그것이 지나면 비록 조잡스럽지만, 영성한 삶 형태가 나오며 이후로 유아의 그림은 급속도로 다양하게 발달되어 간다고 했다.

김정(金正)은 신생아기(新生兒期, 1-3세), 난화기(亂畫期, 3-5세), 전도식기(前圖式期, 5-7세), 도식기(圖式期, 7-9세), 여명기(黎明期, 9-11세), 의사실기(擬寫實期, 11-13세), 사춘기(思春期, 13-16세)로 구분하고 있다. 이 외에 다른 이론으로는 묘필화기(描筆畫期, 1-3세), 도식화기(圖式畫期, 4-5세), 사실화기(寫實畫期, 5-14세)로 크게 구분 짓는 견해도 있으며, 또 신생아기(생후 1개월반), 영아기(생후 2개월 반-2세), 유아기(1년 반-6세), 아동기(6-12세), 청년기(12-성숙)등 5단계로 나누는 이도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연구들 이외도 많은 구분이 있으나 대부분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림을 통한 아동의 발달은 인종, 지역, 사회, 문화 등 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봐서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아동을 중심으로 한 김정(金正)의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9) 버트 (Cyril Lodowic Burt), 영국 심리학자, 1924-1950

10) 켈로그 (Rhoda Kellogg), 미국의 정치가, 1856-1937

▶ 김 정(金正)의 연구¹¹⁾

① 신생아기(新生兒期, 1-3세)

우리나라 아동은 서양에 비해 묘화행위가 상당히 빠른 편으로 연필이나 기타물건을 입에 대기도 하고, 무엇인가 시늉을 보이기도 한다.

② 난화기(亂畫期, 3-5세)

유아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시기로, 그림과 낚서가 뒤섞인 형태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림을 그리려는 시간이 차츰 늘어나면서 관심을 보이게 된다.¹²⁾

③ 전도식기(前圖式期, 5-7세)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주관적인 사고와 의식적인 표현이 이뤄지는 시기로, 그림에 대한 흥미와 감정이 최고조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을 즐겁게 자주 그리려 한다.

④ 도식기(圖式期, 7-9세)

사람과 사물의 형태를 잘 관찰하면서 객관적 표현이 이뤄지는 시기로, 독자적인 표현이 나오게 된다. 유치한 그림이 나오는가 하면 청소년 시기의 그림이 나오기도 한다.

⑤ 여명기(黎明期, 9-11세)

도식화되었던 그림으로부터 객관적 사실성을 강조하는 리얼리티를 추구하게 된다. 또한 시각과 지각의 발달로 사물의 형태를 잘 파악하게 된다.

⑥ 의사실기(擬寫實期, 11-13세)

리얼리티에 대한 개념이 극에 달하는 시기로, 사물과 똑같이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같지 않다면 스스로 못그렸다고 판단하는

11) 김정, 미술교육총론, 학연사, 1986, pp.102-105

12) 김정,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p.103

시기이다. 지나치게 사실적이어서 자칫 만화풍에 젖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⑦ 사춘기(思春期, 13-16세)

자신의 그림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갖게 되므로, 그림 표현에 관해 별 신경을 안 쓰며 곧 포기를 한다. 그림을 유치하다고 보게 되면서 점차 그림을 멀리하게 된다.¹³⁾

4. 아동화의 표현유형 및 특징

(1) 아동화의 표현유형

아동의 그림은 생활감정과 정서적 반응의 표현으로 지능, 성격, 심리, 환경 등이 그림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소재나 색깔 등에 있어 다양성을 갖게 된다.¹⁴⁾ 그러나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도 비슷한 그림끼리 분류하여 정리해 보면 공통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을 통한 아동의 심리적 정신적 표현의 연구는 구디너프(Goodenough), 보링거(Worringer), 리드(Read),¹⁵⁾ 버트(Burt), 로웬펠드(Lowenfeld), 김정 등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졌는데,¹⁶⁾ 아동화의 발달단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아동을 중심으로 한 김정의 분류법을 기초로 하여 아동화의 표현유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3) 김정, 유아의 모화분석, p.124

14) 김영학, 미술교육, 대완도서출판사, 1989, p.23

15) 리드 (Herbert Read), 영국의 시인, 예술비평가, 1893-1968

16) 오중숙, 유아미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1988, p.134

▶ 김정(金正)의 분류

① 대담형

한 화면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너무 크게 그려 한 개나 두개 그리면 화면이 꽉 차 그림이 끝나 버리는 유형을 말한다. 주로 농촌보다는 도시의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생활수준이 높을 경우 이러한 유형의 그림이 많이 나온다. 대담하고 힘이 있어 좋으나 다양한 생각들이 표현되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② 소극형

대담형과는 대조적으로 물체를 작게 그리거나 한쪽 모서리에 그리는 버릇이 있다. 그림 한 장을 완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어떠한 지시에도 시정이 잘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동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리기 싫어서가 아닌 성격상 꾸물대는 것으로 소심한 아동들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③ 개인형

그림을 그렸을 때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그 그림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로 이러한 경우 그 그림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아동의 의도와 생각을 진지하게 들어주어야 한다. 좋게 말해 ‘개성적’ 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난해한 행동이 계속될 때에는 지적발달이 늦은 아동으로 보아야 한다.

④ 비약형

주제 보다는 부제에 더 많이 편중된 그림으로서 대부분의 아동들의 그림에서 흔히 볼수 있다. 같은 화면에 많은 소재를 표현하여 복잡하게 그려나 가는데, 이는 상징적 표현이 아닌 자칫 설명적인 그림이 될 수 있다. 많은

이야기로 인해 주제가 약해지며 그림의 통일성은 없어지기 쉽다. 이러한 아동은 상상력이 풍부하여 기억력은 좋으나 미적 감각은 부족한 경우다.

⑤ 불균형형

그림 초반에는 잘 되어 가다가 점점 부실해져 끝내는 완성을 못하는 경우이다. 이는 정서적인 불안으로부터 오는 경우로 그림을 못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체가 모호하고 불확실한데 있다.

⑥ 성급형

그림을 빨리 그리고, 그림의 내용 또한 단순하며, 상상력이 결여된 미완성된 상태를 말한다. 그림에 흥미를 잃거나 주위가 산만한 아동에게서 주로 발견된다. 보통 9-10세의 여자 아동에게서 많이 발견되며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많이 나타난다.

⑦ 표준형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림으로 아동화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아동의 생각이나 경험이 수준에 맞게 담겨진 그림으로 잘그리고 못그리고를 떠나 자신이 그리는 과정을 더 중요시 한다. 그러나 표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아동을 위해 이 유형의 그림을 모든 아동의 기준으로 삼고 강조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경험세계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2) 아동화에 나타나는 표현의 특징

① 난화적 표현

보통 무엇을 잡을 수 있을 때부터 난화¹⁷⁾를 그리게 되는데,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마구 난잡한 선으로 그린 것을 말한다.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 그리는 것이 아닌 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즐거운 것이다.¹⁸⁾

② 의인화적 표현¹⁹⁾

소위 애니미즘(animism)현상으로 불리는데, 모든 사물이나 생물을 자기와 동일시하여 얼굴을 붙여주는 것으로 의인화적인 표현을 하게 된다. 이러한 표현은 애정 깊은 표현이라 할 수 있으나 늦은 시기에도 이것이 계속 된다면 지적발달이 늦거나 정서과잉으로 봐야 할 것이다.²⁰⁾

③ 열거식 표현

사물과 사물간의 관계에 대한 판단의 부족으로 화면의 통일성이 없고 열거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사물의 표현은 구체적이나 공간의 통일성은 없다. 화지를 빙글빙글 돌려가며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하나씩 그려나간다.

④ 투시적 표현

웬트겐기법 또는 엑스레이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속 내부의 모습까지 들여다보이게 그리는 유형을 말한다.²¹⁾ 구디너프(Goodenough)는 이러한 표현방식을 “어린이가 보는 것을 그리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린다”고 했고 로웬펠드와 브리테인은 “안 보이는

17) 난화(亂畵): ‘아무렇게나 그리다’, ‘휘갈겨 그리다’의 뜻 (scribble)

18) 김삼량,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p.56

19) 의인화(擬人化): ‘사물을 사람에 비겨 표현하는것’

20) 최주연, 아동미술의 그리기 지도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pp.19-20

21) 김정, 미술교육 총론, 학연사, 1994, p.198

곳도 보고 싶은 아동의 충동적 호기심”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소아정신과 병원에 잘 나타난다.

⑤ 동시성의 표현

3차원의 미분화에 따른 표현을 2차원으로 해석하여 그리는 표현으로 전개도식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시간, 공간, 위치, 방향등을 하나의 평면상에 동시에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동시성 또는 시점이동의 표현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집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한다든지 자동차의 옆모습과 앞모습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²²⁾

⑥ 연속성의 표현

아동은 그림을 그릴 때 과거, 현재, 미래를 한 화지에 담는다. 이것은 이야기의 연속성과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으로 또 다른 말로 시간적 계속묘사법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소풍갈 준비를 하는 것, 버스타고 가는 것, 도착하여 노는 것 등을 모두 표현한다.²³⁾

⑦ 자기 중심적 표현

저학년 때 주로 나타나는 표현으로 그림을 그릴 때 과장하거나 생략하여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다. 강한 인상을 받았거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작게 그린다. 즉 대상의 원근이나 크고 작음을 무시한 채 자기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⑧ 미분화적 표현

사물이나 물건을 개별적으로는 잘 인식하나 물건과 물건, 사물과 사물간의 구성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물을 관련짓는 능력이 성숙하지 못하다. 이 표현은 열거식 표현과 관련이 있다.

22) 앞의 책, p.21

23) 김삼량, 미술교육 개론, 미진사, p.56

⑨ 반복적 표현

열거식 표현과 비슷한 반복적 표현은 같은 모양을 계속 반복하여 그리는 것으로, 같은 형상을 반복하여 그리는 것은 많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욕구의 표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서적 억압상태에서 사고가 굳어 있거나, 상상력이 부족한 아동에게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⑩ 기저선의 표현

유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표현으로 사물과 사물간의 유기적 관계를 의식하게 된다. 도식기부터는 기저선을 긋고 하늘과 땅을 구분짓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사회성이 성장하는 시기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⑪ 대칭적 표현

대칭적 표현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간에 대한 중압감으로 표현함에 있어 자신이 없을 때와 화면을 장식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심리에서 구성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그 외에 심리적 불안감, 공허감을 탈피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고 싶은 심정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배열하여 균형을 잡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칭적 표현은 딱딱한 그림을 만들며, 운동감이 없는 그림이 된다. 그림의 완성도를 요구하기 보다는 자기방식 표현을 인정해 주고 불안한 정서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표현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⑫ 환상적 표현

유아기에 어린이들은 환상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 보이는 세계보다는 내면의 눈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해 내는 것이다. 이를 화지에 표현하게 되면 상상화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무의미한 표현이 아닌 그들의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욕구의 표현인 것이다.

(3) 아동화의 표현특징에 따른 표현기법

김정의 아동화의 발달단계 중 본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전도식기와 도식기의 표현특징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표현기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① 전도식기(前圖式期, 5-7세)

-표현특징

무의식적 표현 과정으로부터 점차 의식적인 표현과정으로 옮겨 지는 상징적 도식(象徴的 圖式)의 기초 단계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대상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또는 대상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묘사 한다. 인물을 주로 많이 그리는데 처음에는 원형과 팔다리, 몸통, 발 등이 그려지다가 점차 발전하여 웬만한 사물의 형태는 잘 그리게 된다. 동화적 표현 역시 많이 그리며 투시적 표현과 열거식 표현이 이루어진다.

-표현기법

주로 우연의 효과를 이용한 표현기법으로 불기, 실그림, 번지기, 뿌리기와 흘리기, 마블링 등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기법을 활용한다. 아동은 우연히 나온 결과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더 발전된 그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기 기법을 한 후에 꽃을 그려준다던지(불기 기법을 한 후에 가지가 연상되었다.) 흘리기를 한 후에 비오는 것을 연상하여 그리는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도하지 않은 우연적 현상에 상상의 날개를 달아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포토몽타주나 실물찍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실물찍기는 꼭 실물이 아닌 감자나 당근에 모양을 만들어 찍기도 한다. 포토몽타주는 주로 사람의 얼굴을 붙이고 자신이 원하는 포즈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커다란 종이에 손가락으로 휘저어 가며 그림을 그리는 색풀 그림을

통하여 정신적 해방감을 느끼기도 한다.

② 도식기(圖式期, 7-9세)

-표현특징

이 시기에는 사물을 보는 눈과 더불어 개념과악에 자신이 붙는다. 사람이나 사물의 차이를 판단하는 능력이 발달함으로 그들만의 독자적이 표현이 이루어지고, 공간 개념의 표현으로 기선(基線)을 긋게 된다. 사물을 관찰하는 태도는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옮겨 가려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난다. 섬세한 묘사에 집착하게 됨에 따라 과도한 리얼리티가 싹트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표현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차츰 강해져서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아동이 발생하기도 하며 계속 흥미를 갖고 작업하는 아동과 자꾸 실패만 거듭하여 미술이 싫어지는 아동으로 구분되기 시작한다.

-표현기법

도식기의 아동은 전도식기의 아동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인 사고가 이루어져 자신이 의도한 대로 기법을 활용하며 주제에 맞는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우연의 효과를 이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꼴라주나 모자이크, 스크래치 포토몽타주 등의 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기법은 사진이나 재질, 재료 등의 효과를 이용하게 되는데, 꼴라주 기법은 여러 가지 사진의 모양과 문자를 이용하여 주제에 맞는 창의적인 모양을 구성해 보는 활동이고, 모자이크는 일반 그리기 도구가 아닌 색종이나 잡지등을 이용하여 무늬나 그림모양을 표현하는 활동이다. 포토몽타주는 주로 잡지를 이용하여 독창적으로 조합하는 활동으로 환상적인 효과나 풍자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Ⅲ. 아동미술에 있어서의 표현기법

1. 표현기법 교육의 필요성

아동에게 있어 그리기는 자신의 성장과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초보적인 활동으로 미술의 여러 영역 중 가장 많이 활동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그리기 활동은 준비물이 간단하고 활동이 까다롭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뤄진다. 그러나 가장 많이 이뤄지는 활동에 비해 아동의 그림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심지어 본 연구자의 어릴적 그림과 지금 현재의 아동들의 그림에는 별 차이가 없다. 예들 들어 굴뚝에 연기 나는 집이나 꽃잎 다섯 장에 활짝 피어 있는 꽃, 고동색 기둥에 초록색 둥근 잎을 가진 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모습, 집 한채와 사람 하나 그리고 구름을 그려 완성된 그림 등 모두 자기가 살펴본 그림이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림, 즉 생각으로 그린 관념적 그림인 것이다. 이로 인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듣는 얘기가 “아이들 그림이 똑같다.”, “꼭 한 아이가 그른 것 같이 모양도 색깔도 비슷비슷하다”는 말이다. 이 똑같은 모양의 그림은 같은 또래 아이들뿐만 아니라 1,2학년과 5,6학년 아이들 그림이 서로 닮아 있고, 농촌과 산촌과 대도시 아이들의 그림 모양과 색깔이 거의 비슷하다.

21세기는 컴퓨터의 일반화와 영상매체의 발달 등 새로운 시대가 도래(到來)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관념적 그림에 눌러 과거와 똑같은 그림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묘화(描畵)²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늘 그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자기표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다양

24) 묘화(描畵) : 사전적 의미는 “그림을 그린다”는 뜻으로 대상을 관찰하여 표현하는 것임. 창의성 발달에 큰 보탬이 안 된다는 일반적인 통념이 많다.

한 표현기법을 통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

표현기법 교육은 아동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불어넣어 주고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사고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므로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자기표현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표현기법 교육은 관념적 그림에 눌러 자기표현이 이뤄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보다 넓은 창작 세계를 열어주게 된다.

2. 표현기법 교육

표현기법 교육은 아동들에게 상당히 높은 창의력 개발을 유도하고, 상상력 및 유연성, 적용력 등을 키우는 교육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통해 보다 넓은 새로운 조형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표현기법에는 마아블링, 불기, 데칼코마니, 프로타주, 흘리기, 번지기, 스크래치, 핑거 페인팅 등 다양한 기법의 교육방법이 있고, 지금도 많은 작가들에 의해 표현 기법은 계속해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아동은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한 우연적 시각현상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며 낯선 것에 대한 자극과 반응을 유출해낸다. 이러한 독특한 표현이 응용되어 재창출 될 수 있는 미술교육의 발판이 마련되어 져야겠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 기법들을 우연의 효과를 이용한 기법, 바탕의 효과를 이용한 기법, 판이나 사진을 이용한 기법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한다.

3. 여러 가지 표현기법

(1) 우연의 효과를 이용한 표현 기법

① 불 기(blow techniques) : 종이 위에 물감을 떨어뜨린 후 대롱 또는 입으로 불어 물감이 퍼져나가게 하는 기법이다.

② 번지기(bloting) : 종이를 미리 물에 적시거나 물감을 칠하고 마르기 전에 그 위에 또 다른 물감을 칠하면 물감이 번지게 되어 기묘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법이 한국화에서는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현대 추상화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③ 실그림(thread picture) : 물감 묻힌 실을 종이 사이에 넣고 잡아당겨 무늬를 얻는다.

④ 데칼코마니(decalsomanie) : 전사법으로, 종이를 반 접어서 한쪽 종이에 물감으로 그린 후 접어서 눌렀다 펴면 좌우 대칭의 우연의 무늬가 생긴다. 주로 대칭형의 곤충이나 동물형이 많이 나온다.

에른스트(독일)이래 널리 응용되었으며 현대 미술에서는 초현실주의자들이 응용한 오토매틱한 회화기법을 말한다.

아동미술에서는 제작방법이 단순한데 비해 효과가 뚜렷하여서 연령에 구애됨 없이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²⁵⁾

⑤ 마블링(marbling) : 물 위에 유성 잉크나 물감을 떨어뜨리고 휘저으면 여러 가지 색이 엉크러져 재미있는 모양이 떠오른다. 이때 종이를 수면에 댔다가 들어내면 종이에 우연적이고도 예상치 않은 다양한 무늬가 찍혀 나온다. 이것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기법이다.

25) 김경숙, 미술교육의 변화에 따른 아동화 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p.41

⑥ 태우기(burning) : 종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태워 우연적인 효과의 무늬를 살려 나타낸다.

⑦ 뿌리기와 흘리기(sprinkle and spill) : 붓을 사용하지 않고 물감을 종이 위에 뿌리거나 종이를 기울여 물감을 흘렸을 때 나타나는 기법으로 20세기 초 에른스트가 한 때 이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으나 이 기법을 본격적으로 사용해 주목을 끈 것은 폴록의 작품에서였다. 폴록의 작품 경향을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이라 칭하는데, 현재는 샘 프란시스 등에 의해 그 기법이 이용되고 있다. 아동 미술교육에서는 행위성의 강조보다는 우연의 효과에서 오는 미적감각 및 흥미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화면에 흩어져 떨어져 있는 수많은 색점이나, 화면의 경사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물감을 정착시켜 가며 아동은 미적 판단력을 기르게 되고 미적 쾌감을 느끼게 된다.

(2) 바탕 효과(재질·재료 등의 효과)를 이용한 표현 기법

① 프로타주(frottage) : 프로타지란 불어로 ‘문질러 나타내다’의 뜻으로 요철, 또는 바위나 나무의 거친 면에다 종이를 얹어 연필이나 색연필, 크레용 따위로 문질러서 나타내는 독특한 기법을 말한다. 작가의 의식이 작용하지 않은 차원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의미에서는 데칼코마니(Decalcomani) 타시즘(Tashime),²⁶⁾ 오토마티즘(Automatism)²⁷⁾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²⁸⁾ 초현실주의의 에른스트가 착안한 기법으로 거기에는 물질에 의해서 촉발된 의식하의 불안한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에른스트의 ‘박물지’란 유

26) 타시즘(Rashism) : 작가가 이미지를 직접 그려내는게 아니라 안료의 번짐에 의존해 그리는 것으로 흔히 ‘먹물화’라 불림

27) 오토마티즘(Automatism) : 무의식적 자동작용 또는 자동묘법으로 손이 가는데로 그린 것을 말함.

28) 앞의책, p.41

명한 작품이 있다.

어린이들이 제작함에 있어 절차가 단순하며 효과가 다양하여 미적 창조활동에 활기를 줄 수 있다.

② 파피에 콜레(papier colle) : 종이를 풀 따위로 붙이는 기법이다. 브라크와 피카소가 시작한 큐비즘의 표현 기법의로 추상적 선의 요소와 해체된 큐비즘의 화면에 현실감과 일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신문지·상표·벽지·차표 따위의 인쇄물·판화 등을 붙여 새로운 조형 효과와 물체감을 도입한 방법이다. 이 기법은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콜라주로 발전되었다.

③ 콜라주(collage) : 큐비즘의 파피에 콜레가 발전된 것으로 신문, 잡지, 형겔, 끈, 실 등을 화면에 붙여 표현하는 기법이다. 본래 상관관계가 없는 별도의 영상을 최초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합시켜 색다른 미적 효과를 노린 기법이다. 다다·초현실주의에 의해 개발되어 에른스트의 ‘백두여인’, ‘자선주간’ 등이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은 현실의 다양성을 화면에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의 하나가 되어 팝 아트를 비롯해 20세기 미술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④ 스크래치(scratch) : 여러 가지 밝은 색을 칠한 후 그 위에 어두운 색으로 덧칠하여 송곳이나 칼로 긁어내어 밑색이 나타나게 하는 기법이다. 그런데 이 기법은 화면을 두 차례에 걸쳐 매꾸어야 하기 때문에 팔에 힘이 많이 들게 되어 유아들에게는 부담스런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들에게는 작은 종이를 준다든지, 두툼한 색도화지 위에 어두운 색을 칠하게 한 후 긁어내게 하는 방법이 적합하다.²⁹⁾

⑤ 배 텍(battic) : 초나 크레파스로 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물감을 칠하면 크레파스나 초가 칠해진 부분은 배수가 되어 특이한 효과의 그

29) 앞의 책, p.45

림이 된다. 납결염(파라핀염)은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⑥ 모자이크(mosaic) : 색종이, 돌, 색유리 등 작은 조각들을 늘어놓아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옛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고대 로마는 기법과 표현을 발전시켜 비잔틴 미술에 모자이크의 번영을 가져오게 하였다. 유명한 작품으로는 ‘테오도라 황비상’ (비탈레 성당)이 있다.

아동은 색종이나 잡지를 이용하여 어떤 무늬나 그림모양을 표현한다.

⑦ 색풀그림(finger painting, 지화) : 안료에 풀, 가루비누 등을 섞어 종이 위에 손가락으로 자유롭게 그리는 것으로 손가락 대신 나무젓가락이나 빗, 또는 구긴 종이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아동은 커다란 종이에 손가락으로 휘저어 가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신적 해방감을 느끼고 긴장해소를 맞볼 수 있게 된다.

(3) 판·사진 등을 이용한 표현 기법

① 스텐실(stencil) : 공판화의 일종으로 종이, 천 등에 구멍을 내어 판을 만들고 판 밑에 종이를 놓아 찍어낸다. 단순형의 표현과 구성적 표현 효과를 갖는다.

② 몽타주(montage) : 동일화면 내에 다른 두 개 이상의 영상을 서로 합성하여 조립하는 기법을 말한다. 다다에서 처음 시도했는데, 그들은 콜라주에서 자극을 받아 관계없는 몇 장의 사진을 동일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환상적인 느낌의 효과를 표현했다.

③ 실물 찍기 : 물체에 직접 물감을 묻혀 종이에 찍어낸다. 빛이나 나뭇잎 등 실제 사물을 찍어본다.

④ 포토몽타주(photo montage) : 사진의 특수기법 중 하나로 인쇄된 사진을 오려서 종이에 붙여 맞추는 방식으로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즐겨 이용한 방법이다. 환상적인 효과나 풍자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법으로 주로 잡지를 이용한다.

상상력이 풍부한 아동들은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각종 사진이나 잡지를 독창적으로 조합함으로써 표현, 그 자체에서 커다란 쾌감을 느끼게 됨은 물론 상상력의 유연성(flexibility), 유창성(flucency)이 배가된다.³⁰⁾

30) 앞의 책, p.42

IV. 표현기법 활용의 실제

1. 표현기법

(1) 그리기

[도1-a] 곡선을 그려요. [도1-b] 실그림

■ 학습목표

실을 이용한 다양한 표현을 알 수 있다.

■ 준비물

실, 도화지, 수채물감, 검정도화지, 흰색물감

■ 지도방법

· 굵고 가늘고 재질이 다른 여러 가지 실을 붓을 이용해 색을 입힌 뒤 종이 사이에 실을 넣고 힘껏 잡아당긴다.

(검정도화지일 경우 흰색 물감만 묻힌다.)

· 모양을 보고 연상그리기 활동으로 연계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을 하기 앞서 2명이 한 조를 이루게 하였다. 유아들은 신체적 미분화 상태이므로 혼자서 제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뤄 한사람은 누르고 한사람은 실을 당기게 하여 협동작품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아동은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물감을 묻힐 때 한 학생이 실을 양쪽으로 잡고 있으면 남은 학생이 붓으로 물감을 묻혀 나가는데, 실을 잡기 보다는 물감 묻히는 데에 아이들은 더 흥미를 느껴 서로 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서로 번갈아 가며 묻힐 수 있게 지도하여야 한다.

물감 묻힌 실을 도화지에 올려놓을 때 물의 농도가 묽었던 학생들은 물감이 도화지 위로 떨어져 나중에 가늘고 선적인 실의 표현을 덮게 되었다. 그러므로 물감 섞는 농도가 너무 묽지 않도록 지도하고 잡아당길 실의 여유가 도화지 밖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알려준다. 또한 꼭 반으로 접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 준다.

누르는 학생은 너무 세게 또는 너무 느슨히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을 빼는 학생이 많이 힘들어하는 조가 대부분이었다. 사실상 이 수업을 하는데 있어 아동들은 실을 빼내는데 가장 힘들어했다. 그러므로 화지를 누르는 학생과 실을 빼는 학생의 조화가 잘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을 천천히 빼내며 누르는 손힘의 강약이 적절히 이뤄져야 했다.

[도2] 실 굴리기

■ 학습목표

실을 이용한 다양한 표현을 알 수 있다.

■ 준비물

실, 연필, 물감, 도화지

■ 지도방법

- 연필에 실을 촘촘히 감는다.
- 실이 감겨진 연필에 여러 가지 색의 물감을 입혀 종이 위에 굴려준다.
- 여러 번 반복하여 원하는 밀도감을 표현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아이들에게 실뜨기를 연상시키며 서로 마주보게 하여 한명은 연필을 한명은 실을 들고 감도록 하였다. 매우 즐거워하며 협동하여 최대한 평평하게 실을 감아 나갔다. 매듭을 질 때 좀 힘들어하였는데, 초등부는 서로 도와가며 매듭을 잘 지어나갔으나 유아들은 손의 발달이 아직은 미숙하여 선생님

이 지어 주었다. 물감은 붓으로 묻히기도 하고 직접 물감에 묻히기도 하며 실에 물감이 스미는 것을 관찰하였다. 여학생들은 만두피 또는 밀가루 빗딧 물감 묻힌 실을 굴러나갔고 남학생들은 처음에는 구슬 굴리 듯 굴러나갔으나 잘 찍히지 않자 손으로 직접 굴러나갔다. 이때 아동은 1회용 비닐장갑을 끼도록 하였고 바닥엔 신문지나 돗자리를 깔아 물감이 책상에 묻지 않도록 하였다. 미술공부라기 보다는 놀이를 한다는 개념으로 아이들은 유쾌하게 수업을 하였다.

[도3-a] 무지개. [도3-b] 크레파스 환상화

■ 학습목표

크레파스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을 알 수 있다.

■ 준비물

크레파스, 도화지, 물감, 신문지, 다리미, 붓, 칼

■ 지도방법

- 칼로 크레파스를 깎아 도화지에 뿌려준다.
- 그 위에 신문지를 대고 다리미로 다려준다.
- 물감을 도화지에 칠하여 완성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이 수업이 있기 전에 아이들에게 우선 연필을 깎아 보라고 숙제를 내주었다. 이를 통하여 칼의 사용, 연필 깎는 느낌을 알게 하였다.

쓰다 남은 크레파스나 짧아서 쓸 수 없었던 크레파스를 칼로 긁어내는데, 이때 연필을 깎고 마지막 심을 정리하는 듯한 느낌으로 긁어내게 하여, 훨씬 고운 크레파스 가루를 얻게 하였다. 크레파스가 페이지나 자주 부러지는 아동은 칼날의 반대쪽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뿌려진 크레파스를 자꾸 손으로 만져 지저분하게 만들었는데 주의를 요할 부분이다. 칼 사용이 아직은 미흡한 유아들은 그림을 그린 후 선생님이 직접 크레파스를 긁어 주도록 하

었는데 크레파스의 환상적 효과에 매우 신기해하였다.

전기다리미를 사용 할 때는 안전지도에 유의하기 위해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찌혀진 크레파스를 만져보며 신기해하고 만족해하였다.

[도4] 나무(크레파스 찌기)

■ 학습목표

크레파스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을 알 수 있다.

■ 준비물

도화지, 크레파스, 양초

■ 지도방법

- 스케치를 한다.
- 양초에 불을 붙여 크레파스를 녹여준다.
- 1-3초 정도 불에 녹인 후 스케치를 따라 찌어준다.

■ 지도상의 유의점

아이들에게 있어 크레파스는 항상 꼼꼼히 칠하는 재료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손의 힘이 약한 아동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자연히 점묘법을 익히게 된다.

크레파스를 양초에 너무 오래 대면 찌히는 색에 검은 그을음이 묻어나와 순수한 색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이 단계가 지나면 녹아서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너무 조금 대우면 찌히질 않는다. 아이들은 이를 경험하며 크레파스가 적당히 녹을 수 있게 조절 하였다. 유아들은 대부분 겁을 먹고 처음에는 얼른 불에 댔다 떼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져 나중에는 잘 찌어나갔다.

단점은 찌힌 크레파스가 마르면 잘 떨어져 원형 보존이 쉽지가 않다는 점

이다. 코팅지나 비닐 등을 씌워 보관하도록 한다.

양초에 불을 붙일 때 아이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고, 크레파스를 양초에 댈 때 손이 데지 않기 위해 목장갑을 끼거나 크레파스 끝부분을 잡도록 한다.

[도5] 유색이네(크레파스 스크래치)

■ 준비물

크레파스, 도화지, 뾰족한 도구(송곳, 이쑤시개....)

■ 지도방법

- 도화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의 크레파스를 칠한다.
- 그 위에 검정크레파스로 전체를 칠해준다.
- 뾰족한 도구로 자신의 그림을 그려준다.

■ 지도상의 유의점

이 기법은 손의 힘을 많이 요하는 작업이므로 아이들이 부담이 가지 않도록 8절지 반을 사용했다. 또한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 전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생각하도록 하였다.

종이 위에 밝은 색을 칠할 때 유아일 경우 원, 삼각형, 사각형 등 재미있는 모양을 생각해서 칠하도록 하였고, 초등학생은 추상적으로 자유롭게 칠하게 하였다. 이렇게 밝은 색을 칠한 후 검은색을 칠할 때 아이들은 검은색을 다 덮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며 심지어 걱정하는 아동도 있었다. 그러나 힘주어 긁을 때마다 밑색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했다.

[도6] 불이야!(그을림 그림)

■ 학습목표

양초를 이용한 표현방법을 알 수 있다.

■ 준비물

도화지, 양초, 크레파스

■ 지도방법

- 양초에 불을 붙이고 종이가 타지 않도록 종이를 올린다.
- 도화지를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며 양초로 그을려 준다.
- 연상되는 그림을 그려준다.

■ 지도상의 유의점

[도6]은 연기에 그을린 것을 보고 불난 것이 연상되어 소방차를 그리고 소방관이 물을 뿜으며 불을 끄는 것을 그렸다. 그림이 서툴더라도 연기로 인해 당연히 불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으며, 어른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을림으로 무언가를 그리려 하겠지만 아동은 연기를 단순히 불이 난 것으로 연상하며 그 위에 소방차를 그렸다. 기법과 주제가 잘 맞아 떨어진 그림으로 단순한 기법을 통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종이를 불에 너무 가까이 대어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아들의 경우 너무 멀리 대어서 잘 그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도록 한다.

[도7] 토끼와 해바라기 (그을림과 태우기)

■ 학습목표

양초를 이용한 표현방법을 알 수 있다.

■ 준비물

양초, 도화지, 색종이, 풀

■ 지도방법

- 양초로 도화지를 그을리고 원하는 곳을 태워 준다.
- 구멍이 뚫어진 뒷면에 색종이를 풀로 붙인다.

■ 지도상의 유의점

아이들에게 돛보기를 이용하여 종이를 태워본 경험이 있냐고 유도 하며 그
을림에서 더 나아가 태우기까지 해보도록 한다.

우선 그을림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이 작업은 전 시간
에 한번씩 해 보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은 없었다. 다음으로 자신이 태
우고 싶은 부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두개 내지 세 개로 한정을 지었다.
태우는 것은 그을림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으로 불날 소지가 높고 종이에 불
이 붙어 탈 때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므로 아주 신속히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아동은 입김이 세지 않으므로 분무기를 옆에 두고 불이 꺼지지
않을 경우 분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아이들은 실제로 불이 붙어 종이가
타자 당황하며 불을 빨리 끄려 했고 불이 날까봐 겁나 멀리 떨어진 아동도
있었다. 그러나 땀 뚫려진 도화지를 보며 신기해하였고 그 뒤에 자신이 원
하는 색의 색종이를 댔을 땀 지금과 다른 새로운 느낌을 경험하며 흥미를
가졌다.

태우기 작업은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작업으로 유아일
경우 선생님이 해주었고 초등부는 선생님의 개별지도로 이루어지도록 하였
다. 태우는 것은 2 - 3 개로 한정을 지었지만 아이들은 더 많이 태우기를
요구 했다. [도7]은 자신이 좋아하는 해바라기와 토끼의 얼굴을 그렸다.

(2) 짝 기

[도8] 눈알(거품으로 그리기)

■ 학습목표

거품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다.

■ 준비물

물감, 풍풍, 빨대, 종이컵, 도화지

■ 지도방법

- 파레트에 물과 풍뎡 그리고 수채물감을 알맞은 농도로 섞는다.
(문방구에 파는 비눗방울 나라에 직접 물감을 섞어도 좋다.)
- 스트로우를 만들어진 물감에 조금 묻힌다.
- 도화지에 가까이 대고 비눗방울을 붙여 본다.

■ 지도상의 유의점

여러 가지 색을 섞은 비눗방울을 만들 때 아동은 그 농도를 맞추기 힘들므로 문방구에 파는 비눗방울을 사용하여 물감만 섞어 쓰도록 하였다.

[도8]은 비눗방울 나라를 이용하여 직접 종이에 대고 비눗방울이 터져 새겨진 자국이다. 아동은 신나게 여러 가지 색을 이용하여 여기저기 비눗방울을 터트리며 자국을 남겼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감이 스트로우에서 종이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감을 너무 많이 스트로우에 묻히지 않도록 한다. 또한 스트로우 사용 시 비눗방울을 거꾸로 마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다 터트린 비눗방울을 보며 아동은 연상되는 것을 그리도록 하였는데, [도8]의 학생은 눈알 같으며 열심히 다른 한쪽눈을 그려나갔다.

[도9] 꽃(뚜껑으로 찍기)

■ 학습목표

뚜껑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 준비물

도화지, 물감, 뚜껑, 붓

■ 지도방법

- 물감을 묻힌 뚜껑을 꽃 모양이 되도록 도화지에 찍어주도록 한다.
- 파스텔 또는 물감을 이용하여 배경을 꾸며준다.

■ 지도상의 유의점

쉽게 구할 수 있는 싸인펜 뚜껑으로 찍어 주도록 하였는데,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아도 쉽게 해나갔다. 그러나 찍는게 너무 재밌는 나머지 꽃을 만든다는 것은 잊은 채 열심히 찍기만 하는 학생도 있었다. 특히 유아들이 대부분 여백도 없이 찍기에만 정신을 쏟는데 어느 정도 찍으면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일러 주도록 한다.

끝나고 더 찍고 싶다는 학생이 많았으며 마지막으로 파스텔로 칠해졌을 때 꽃의 환상적 분위기에 만족해하며 기존에 그리던 꽃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그려봄으로써 아이들은 새로운 방식에 흥미를 갖고 즐거워하였다. 이러한 표현활동에 미술활동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표현기법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도9]에서는 뚜껑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을 이용했는데 크기나 다른 여러 모양의 뚜껑을 준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도10-a] 다양한 돌맹이. [도10-b] 우주.

■ 학습목표

찍기 활동의 다양한 표현을 알 수 있다.

■ 준비물

검정도화지, 물감, 가위, 붓, 골판지, 로울러, 풀

■ 지도방법

- 골판지에 붓이나 로울러로 물감을 칠한다.
- 물감이 칠해진 골판지를 도화지에 찍어준다.
- 가위나 손으로 모양을 오리고 검정도화지에 붙여 완성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골판지는 재질감 표현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로 그 재질감을 살려 표현하도록 한다.

골판지를 다 잘라 놓고 물감을 묻혀 찍은 후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 놓게 하고 검은색 도화지에 붙일 때는 물감이 묻어나지 않게 손을 씻은 후 붙이게 하였다.

수채물감으로 골판지 위에 붓으로 물감을 칠하는 과정에서 물감이 스며들고 스며들지 않는 곳에 따라 우연히 생기는 효과를 보여주며 아동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후 시작을 하였다. 아이들은 물감의 농도를 맞춰가며 묽게 하면 스며들기만 할 뿐 잘 찍히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며 물감의 농도를 진하게 하여 찍어 나갔다. 또한 찍을 때는 꼭 누르며 찍어 잘 찍히게 하였다.

골판지를 자를 때 아동은 골판지가 두꺼워 힘들어하는 아동이 많았는데, 교사는 아동의 능력을 판단하여 쉽게 자를 수 있도록 돕거나 직접 잘라주는 방법이 있다.

자른 골판지를 붙인 후 아이들은 자신의 그림을 보며 다양한 느낌을 말하였는데 [도10-b]를 그린 친구는 우주 같다고 말하고 [도10-a]의 친구는 다양한 돌맹이 같다고 하며 각각 제목으로 붙였다.

(3) 붙이기

[도11-a] 비가와요. [도11-b] 굵힌 부엌.

■ 학습목표

스크래치 기법을 알 수 있다.

■ 준비물

잡지, 뽀족한 도구(송곳, 못, 볼펜...), 색지

■ 지도방법

- 원하는 잡지를 골라 못을 이용하여 한쪽 방향으로 굵어 찢어준다.
- 뒤쪽에 색지를 대준다.

■ 지도상의 유의점

특별한 기술 없이도 훌륭하게 완성할 수 있는 그림으로 스크래치 후 뒤에 색지를 댄으로써 디자인적인 느낌과 회화적인 느낌 둘 다 가질 수 있는 기법이다.

[도11-a]는 풍경의 사진을 가지고 자잘한 스크래치를 만든 후 한 가지 색을 덧대어 회화적인 느낌이 들도록 하였고 [도11-b]는 공간이 담긴 사진을 스크래치 후 굵게 찢어 그 뒤에 다양한 색을 덧댄으로써 디자인적인 느낌을 많이 들게 했다.

잡지를 선정함에 있어 물건이나 사람보다는 공간이나 자연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사람을 쓰는 경우 징그러운 느낌이 많이 든다.

아동은 뾰족한 도구로 굽은 후 손으로 찢을 때 너무 세게 찢어 종이가 찢어지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좀 더 조심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찢어나갔다. 그림을 그릴 때 심적 부담이 컸던 아동도 부담 없이 해나가며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스크래치를 할 때 밑에 책상이 굽히지 않도록 신문지나 못쓰는 종이 다본 잡지 등을 놓고 하도록 한다. 스크래치 할때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12-a] 나만의 가방. [도12-b] 내가 만든 옷.

■ 학습목표

색상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 준비물

잡지, 칼, 풀

■ 지도방법

· 원하는 모양의 잡지를 선택하여 칼로 구멍을 뚫거나 원하는 모양대로 오려준다.

· 뒤쪽에 잡지에서 찾아낸 다른 색 또는 색지를 대준다.

■ 지도상의 유의점

옷이나 가방 또는 신발 등이 한 면에 2-3개 정도 나온 잡지를 구해오도록 하였다. 물건이 너무 작으면 아이들이 종이를 너무 작게 오리게 되어 힘이 들고 색의 배합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가방을 오려온 친구들은 가방 디자이너, 신발을 오려온 친구들은 신발 디자이너 등 오늘은 디자이너가 되어 보자고 하며 수업을 시작했다.

우선 자를 부분을 연필로 그린 후 칼과 자를 이용하여 자르게 하였는데 초등부도 아직은 칼과 자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시간을 좀 요했고 유아들은 칼과 자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냥 그 위에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오려서 붙이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해나갔다.

마치 디자이너가 된 듯 여러 색을 대보며 색의 배합에 즐거워하였다.

[도13] 나무

■ 학습목표

그라데이션 표현과 형태에 대해 알 수 있다.

■ 준비물

검정도화지, 물감, 넓은 붓, 풀, 도화지

■ 지도방법

- 넓은 붓을 이용하여 물감을 그라데이션 한다.
- 검정도화지를 원하는 모양대로 찢는다.
- 찢어둔 모양을 그라데이션한 종이에 붙여 완성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어린이들이 배경을 꾸미고 표현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쉽고도 재미있게 표현하였는데, 바탕에 그라데이션을 할 때 우선 3-4가지의 물감의 색

을 만든 후 물감의 농도를 약간 묽게 하여 번지는 듯한 느낌으로 칠하였다. 물감이 되거나 적당하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보다는 계단식의 딱딱한 배경이 되므로 물을 좀 더 많이 섞어 색이 변지면서 자연스럽게 섞이게끔 하였다. 붓은 최대한 넓은 붓을 사용하도록 한다.

물감이 마르는 동안 나무 만들 검은 종이를 찢어 놓도록 한다. 찢을 때 너무 잘게 찢거나 나무 크게 찢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13]의 아동은 꼼꼼한 성격의 아동으로 종이를 붙여나갈 때 빈틈없이 깔끔하게 붙여나갔다. 선생님이 나무사진을 보여주며 나뭇잎 사이사이 공간이 있음을 보여줬으나 크게 변한 건 없었다. 결과적으로 나뭇잎 사이사이가 다 검게 붙여져 답답한 느낌이 들게 하였다.

[도14] 늘어난 꽃

■ 학습목표

잡지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을 알 수 있다.

■ 준비물

도화지, 풀, 잡지

■ 지도방법

- 원하는 색의 잡지를 선택 후 찢어준다.
- 찢어둔 잡지를 늘려서 도화지에 붙여 완성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유아들은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며 “퍼즐 맞추기다” 라고하며 이해를 했다. 이 작업은 찢어서 붙일 때 간격을 좀 띄어야 하는데 아이들은 간격을 띄어 도화지에 붙이는 작업에서 앞쪽에서 간격을 너무 많이 띄어 뒤쪽 간격이 촘촘히 이뤄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간격을 너무 좁게 하는 학생이 있어 여백이 굉장히 많이 남은 학생도 있었다.

그림13의 학생은 종이에 붙이는 작업에서 끝쪽으로 갈수록 종이 간격이 모잘라 좁아지다 나중엔 종이끝 보다 잡지 끝이 더 남게 되어 붙인 종이를 다시 찢어 큰 도화지에 붙이는 수고를 하게 되었다. 떨어진 간격에는 찢어진 조각과 조각이 이어질 수 있게 싸인펜으로 연결시켜 확대그림을 만들도록 한다. [도14]의 아동은 이어주는 색을 자신이 좋아하는 색으로 그렸는데, 같은색을 사용하여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유아일 경우 선생님이 가위로 등분을 내준 후 퍼즐 맞추는 식으로 붙이게 한다. 떨어진 간격에는 이어서 그리기보다는 유아들의 높은 상상력을 살려 자신이 생각나는 것을 그리도록 한다. 길을 많이 연상하였고 땅속 마을 개미집으로 생각하는 아동도 있었다.

[도15] 신문지로 꾸미기

■ 학습목표

연상표현에 대해 알 수 있다.

■ 준비물

신문지, 매직, 풀, 색상지(도화지)

■ 지도방법

- 원하는 모양대로 신문지를 찢어 붙인다.
- 붙여진 신문지의 형태를 보고 연상되는 사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연상되는 사물을 매직으로 그려보고 완성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신문지를 여러 크기로 찢어 놓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화지에 붙일 때 화면상에 화지와 신문지중 신문지의 비중이 더 낮도록 붙이게 하였다. 붙인 신문지를 보고 연상그림을 그릴 때 여백이 없으면 그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생각하며 붙여 나갔고 세밀

한 부분은 매직을 이용하여 그려주었다. 그러나 원하는 모양대로 붙여지지 않을 땐 연필로 스케치한 후 붙여주도록 하였다. 반면 유아들은 찢어진 신문지를 마구잡이로 붙여놓고 연상되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다. 초등학생의 그림은 주제가 한 화면에 통일되게 나오는 반면 유아는 열거식의 관련 없는 사물이 죽 늘어지는 그림이 되었다.

2. 표현기법에 따른 비교·연구

[도16-a] 꽃. [도16-b] 꽃밭.

그림a는 무분별하게 무조건 나뭇잎을 찍는 것이 아닌 자신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가지고 질서 있게 찍어나갔는데 본의 아니게 데칼코마니 적인 성격이 나오게 되었고 b의 아동은 좀 더 발전하여 회화적 느낌의 꽃밭을 표현하였다.

[도17-a] 젓소. [도17-b] 우주 그리기. [도17-c] 커피한잔.

플라주 기법은 앞서도 설명했듯이 잡지나 형겔, 실 등을 화면에 붙여 표현하는 기법인데, 그림 17의 a, b, c는 한 가지 기법으로 인한 다양한 표현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림a는 신문지와 색종이를 이용한 것으로 재밌는 표정의 사람을 잘라 소등에 태움으로 아동의 장난스런 표현에 웃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전개하여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 반면 그림b는 이러한 아쉬움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림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붙이기도하고 그리기도 하며 다양한 창조 활동을 해나갔다. 그림c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한지에 실제 수저와 포크를 붙여 색다른 느낌을 자아냈다.

1가지 기법을 통하여 각각의 생각들이 다양하게 표현 되어지는 것을 경험

한 아동들은 자신의 표현기법을 통한 자신만의 작품과 친구들의 다양한 작품을 비교해 보고 자신이 생각지 못한 것을 봄으로써 창조성을 더 키워나갈 수 있었다.

[도18-a] 숲속. [도18-b] 공작새. [도18-c] 나뭇잎물고기.

나뭇잎을 단순히 부치기 보다는 나뭇잎을 이용하여 다른 발전된 형태를 아이들에게 유도함으로써 창조적인 미술 수업이 이뤄질 수 있게 하였는데, 그림a는 나뭇잎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 숲을 이루었고 그림b는 나뭇잎의 고유 형태를 탈피하여 공작새를 만들었다. 그림c는 나뭇잎으로 형태를 만든 후 구멍을 뚫어 눈까지 표현하는 더 발전된 표현이 이루어 졌다.

단순한 기법을 통하여 아동의 무한한 창조력이 보여지는 좋은 기회였다.

[도19-a] 실그림. [도19-b] 마법의 성. [도19-c] 별나라 우주공룡.

그림a는 단순한 실 기법 표현으로 우연히 나온 결과로 끝나버렸지만 그림 b는 우연히 나온 결과에 연상되는 주위 배경을 그려 넣음으로써 훨씬 그림이 풍부해 졌으며 그림c는 결과물에 따른 연상 작용으로 싸인펜을 이용하여 직접 그 위에 연상된 것을 그려 줌으로써 창조적인 미술활동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도20-a] 데칼코마니. [도20-b] 나비. [도20-c] 나.

그림a는 단순한 우연의 효과를 이용한 데칼코마니 기법 그 자체로 아동의 창의성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그림b는 찍혀진 결과에 연상되는 나비를 그려 넣음으로써 한 단계 성숙한 그림이 되었고 그림c는 데칼코마니의 성질을 이용해 가며 인물을 표현한 후 그에 맞게 배경을 그려 넣음으로써 풍부한

그림이 되었다. 이렇듯 단순한 기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활용과 응용이 이뤄져야겠다.

[도21-a] 물감변지기. [도21-b] 나무. [도21-c] 안경과 물고기.

그림 a는 물감이 단순히 변지는 데 그친 반면 b는 동양화 기법에서 많이 활용된 먹을 사용하여 나무를 표현했고 그림c는 물감 변지기와 데칼코마니 기법이 혼합되어 그것으로부터 연상되는 그림을 그려 넣음으로 새로운 그림이 되었는데, 한 가지 기법의 사용보다는 혼합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은 좀 더 새롭고 발전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었다.

[도22-a] 불기. [도22-b] 생일케익. [도22-c] 꽃나무.

그림a는 물감 불기에만 충실할 뿐 더 발전적 그림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그림b는 케익을 그리고 폭죽 터트리는 것을 불기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그림c는 불기기법으로 우연히 나온 결과에 연상되는 꽃봉우리를 그려줌으로써 창조적 미술활동에 더욱 접근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대상인 6세-9세의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미술에 따른 표현기법을 통해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자기표현을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능위주인 기법습득에서 벗어나 표현의 응용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표현기법에 중점을 두고, 아동에게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표현 방법에 대한 기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을 혼용하여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였는데(크레파스 녹여 나타내기[도4], 스크래치[도11-a,b], 물감 찍기[도9], 종이 찢어 붙이기[도13] 등) 이를 통하여 미술 교육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기법에 관한 방안 및 유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7]과 같이 태우는 기법은 불날 소지가 있는 매우 위험한 기법으로 선생님의 개별적인 지도가 이루어 져야 했고, [도5]는 손의 힘을 많이 요하는 기법으로 유아들은 작은 종이를 미리 준비해야 했으며, [도11-a,b]는 뾰족한 도구의 사용으로 가능한 힘을 너무 주지 않아 안전에 유의 하는 등 다양한 기법에 따른 각각의 유의점과 방안이 달랐다.

비교연구를 통한 아동의 창의적 기법활용에서는 단순한 기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좀더 발전된 그림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해 보았는데, [도20-a,b,c]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데칼코마니 기법을 a처럼 우연히 나온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 b와c처럼 연상 작용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창조적인 그림이 나오게 하였고, [도22-a,b,c]의 붙이기법에서도 a는 단순한 붙이기법으로 끝난 반면 b는 바탕에 붙이기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잘 부각시켰고 c는 우연히 나온 결과에 꽃봉우리를 그려 넣어줌으로써 자신만의 새로운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림21-c]는 1나의 기법이 아닌 2개 이상의 기법이 합쳐져 아동의 표현가

능성을 확장시킨 것으로 번지기 기법과 데칼코마니 기법이 적절히 혼합된 작품으로 매우 발전된 경우이다. 대부분의 아동은 한가지의 기법에만 그칠 뿐 또다른 기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기법 교육은 초기작품 즉 기존의 ‘붓으로만 그린다’는 교육보다는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교육으로서 아동에게 자발적인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게 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였고, 이로 인한 그림의 내용은 훨씬 풍부하고 다양해 졌으며 개성적이고 창의로운 자기표현이 이루어 졌다.

이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미술교사가 기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지도방법에 대한 개선책으로 실행된다면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미술 표현 기법과 재료를 무수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어린이들은 새로운 조형 활동에 부담을 갖기보다는 새로운 조형언어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며 표현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통한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면 어린이들은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동 스스로의 개성에 따른 창의적인 자기표현을 하게 되어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사회에 조화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자는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한 창의적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권상구(1998), 아동미술교육, 미진사.
- 김병옥(1985), 미적 정조 육성을 위한 조형표현의 지도“예술과 창조”,서울예전, 한국예술문화연구소.
- 김삼량(1985), 미술교육 개론, 미진사.
- 김영학(1989), 미술교육, 대완도서출판사.
- 김 정(1994), 미술교육 총론, 학연사.
- 김 정(1989),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창지사.
- 김 정, 유아의 묘화분석, 학연사.
- 김정, 이수경(1985), 조형놀이 교육, 교문사.
- 심효식(1968), 아동화의 지도와 평가. 미진사.
- 양경희(2001), 21세기를 위한 열린 아동미술 교육, 학지사.
- 오종숙(1988), 유아미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 유아미술 교육(1995), 유아미술연구회편, 학문사.
- 김경숙(2000), 미술교육의 변화에 따른 아동화 지도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희(2002), 다양한 재료를 통한 아동미술 교육의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주연(2001), 아동미술의 그리기 지도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Rose H. Aischiuer(1947), Painting and Personality, La Berta Weiss Hattwick, University of Chicago.

ABSTRACT

A Study on Expression Techniques through Art of Children

Choi, Hyang Ran

Major in Fine Art Education

Dept. of School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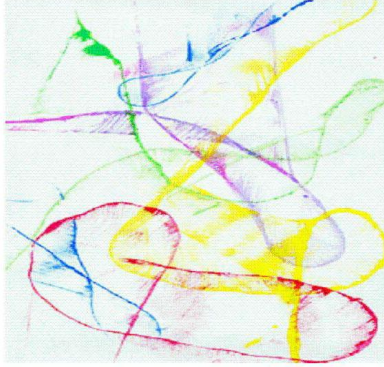
Sungsin Women's University

The children express their idea and feelings through the art. In other words, the art is the effective self-expression method for children, so it is important for children to be familiar with the drawing and painting. Therefore, teaching the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of the art is helpful for children to express their thoughts more fre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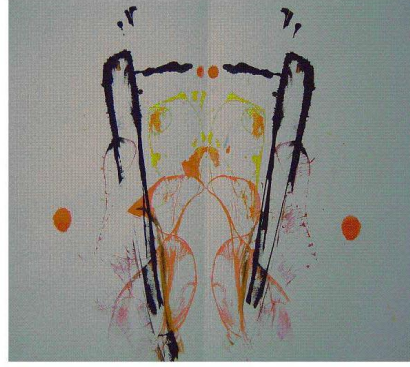
Education of the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for children should be fun and interesting for children to induce their curiosity, not a technical education. Also,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are the most important one which can help unique and free self-expression and promote an interest for children. Therefore, children can learn the expression technique through self-searching and self-experi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by searching the references and research the children's activities as putting these studies in practice.

[참고도판]



[도 1-a] 곡선을 그려요, 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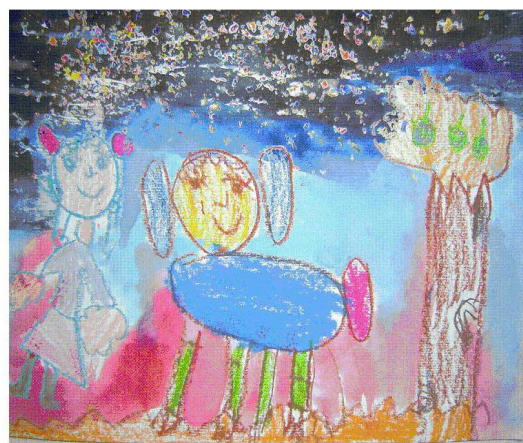
[도 1-b] 실그림, 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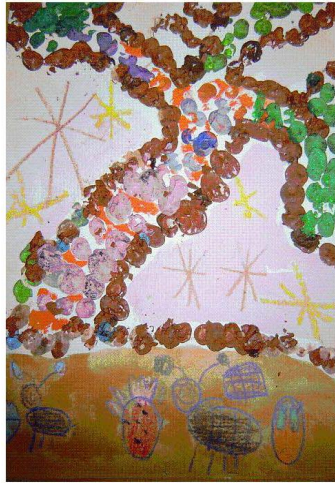
[도 2] 실굴리기, 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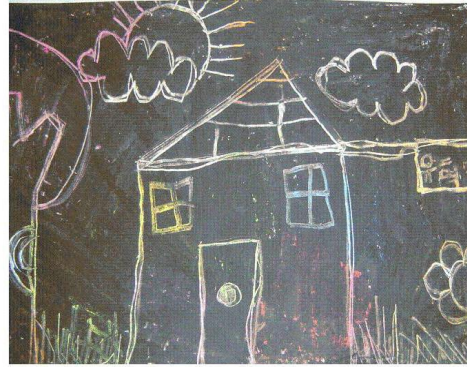
[도 3-a] 무지개, 6세



[도 3-b] 크레파스 환상화, 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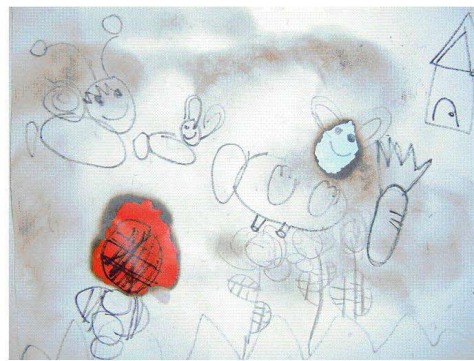
[도 4] 나무, 7세



[도 5] 유혁이네, 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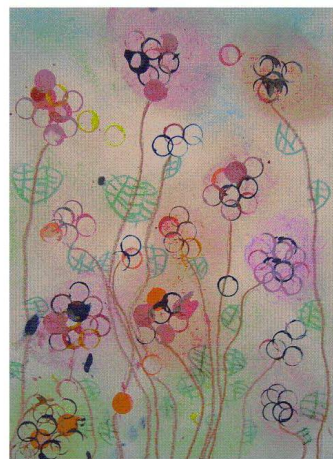
[도 6] 불이야! 6세



[도 7] 토끼와 해마라기, 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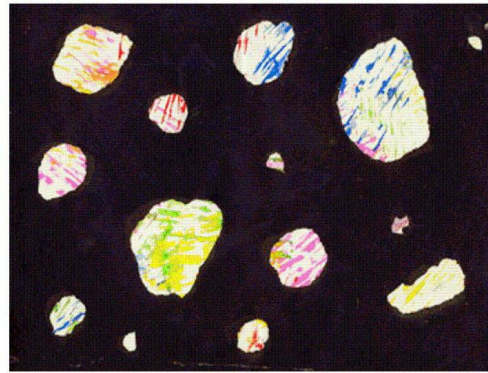
[도 8] 눈알, 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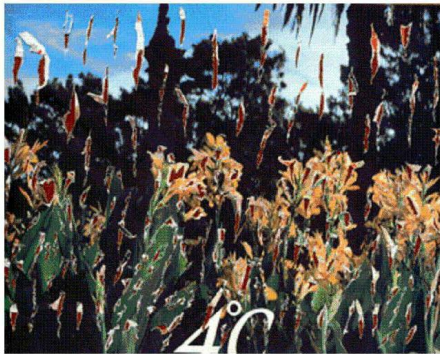
[도 9] 꽃, 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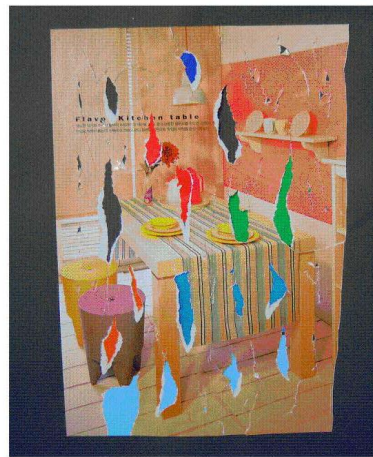
[도 10-a] 다양한 돌맹이. 초1



[도 10-b] 우주. 초1



[도 11-a] 비가와요. 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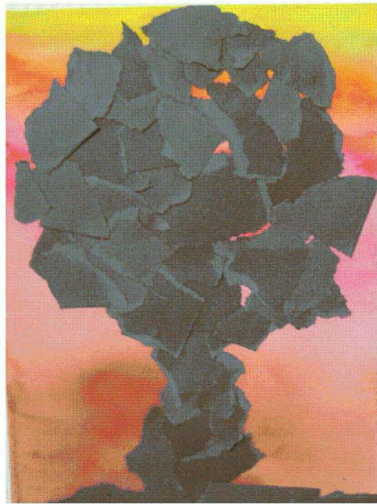
[도 11-b] 부엌. 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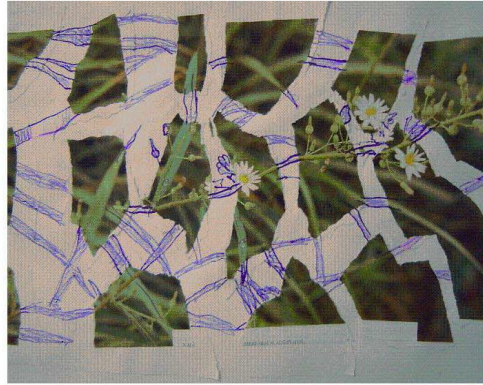
[도 12-a] 나만의 가방. 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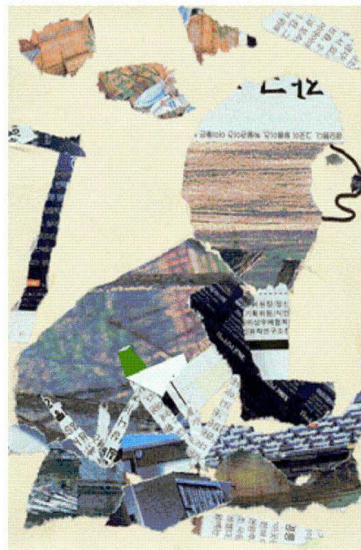
[도 12-b] 내가 만든 옷. 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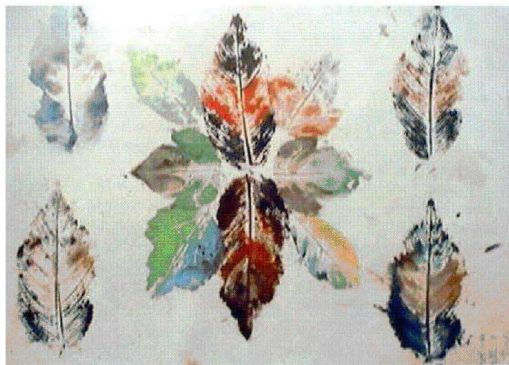
[도 13] 나무. 7세



[도 14] 늘어난 꽃. 초1



[도 15] 원숭이. 초2



[도 16-a] 꽃. 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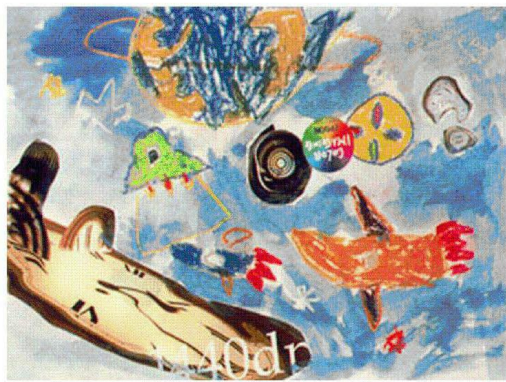
[도 16-b] 꽃밭. 초1



[도 17-a] 소. 초1



[도 18-a] 숲속. 초1



[도 17-b] 우주 그리기. 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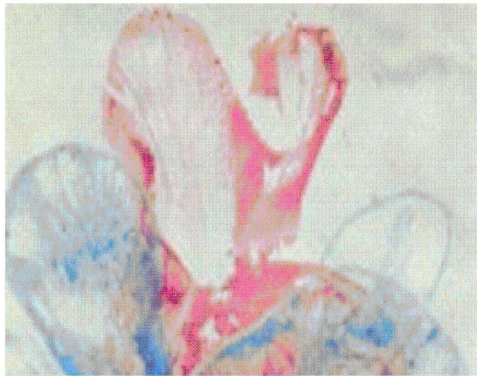
[도 18-b] 공작새. 초2



[도 17-c] 커피잔. 초2



[도 18-c] 나뭇잎물고기. 초2



[도 19-a] 실그림. 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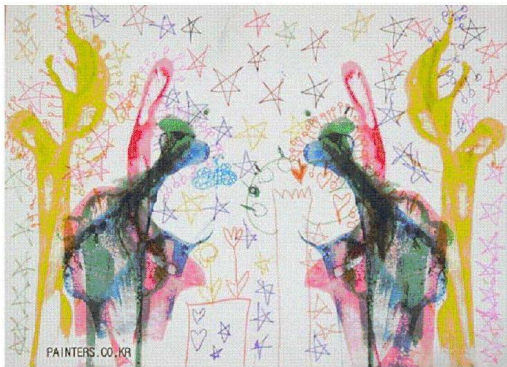
[도 20-a] 데칼코마니. 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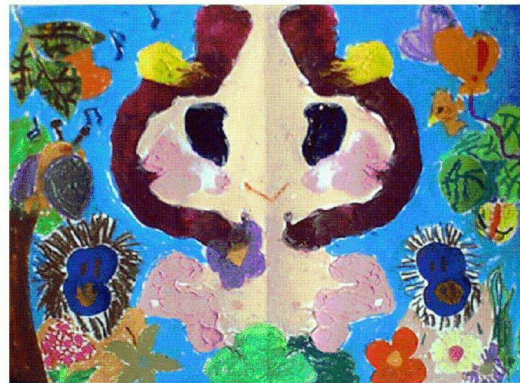
[도 19-b] 마법의 성. 초1



[도 20-b] 나비. 7세



[도 19-c] 별나라 공주공룡. 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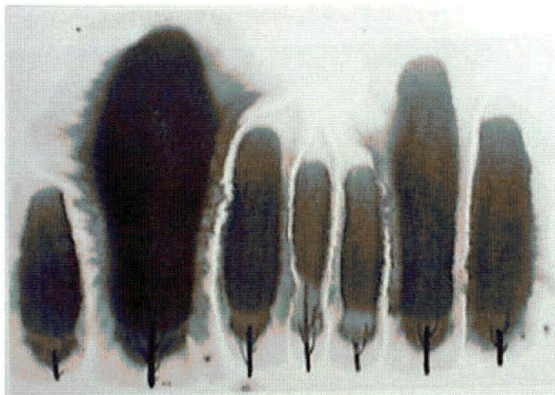
[도 20-c] 나. 초2



[도 21-a] 물감 번지기. 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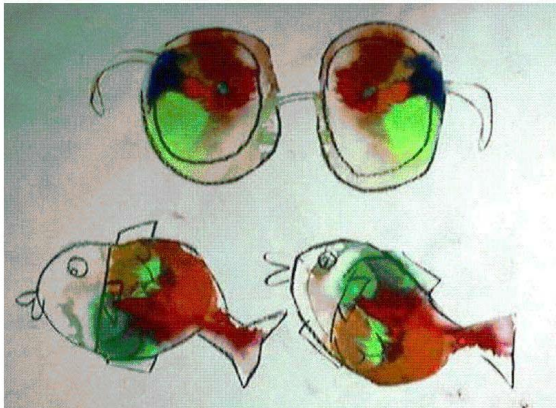
[도 22-a] 불기. 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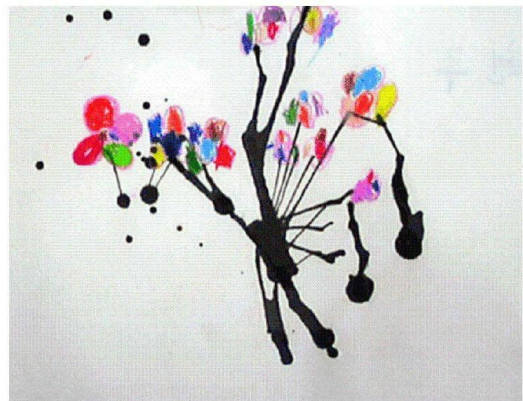
[도 21-b] 나무. 초2



[도 22-b] 생일케익. 7세



[도 21-c] 안경과 물고기. 초2



[도 22-c] 꽃나무. 7세